

한국과 알제리 속담에 나타난 전통 여성관 비교

김 경 랑
(인하대학교)

1. 서론

“알제리는 아프리카 대륙 북서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로 공식 이름은 ‘알제리 민주인민공화국’이다. 동쪽은 튀니지, 서쪽은 모로코, 남동쪽에서 남서쪽에 걸쳐서는 리비아·니제르·말리·모리타니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 나라는 현재 아프리카와 아랍 세계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나라이다. 1830년 프랑스의 침입으로 식민지가 되어, 카빌리의 반란 등 독립운동을 계속하다가 1954년 알제리 민족해방전선(FLN)을 결성하고 프랑스에 무력으로 항쟁을 개시하였다. 1958년 FLN은 알제리 공화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선언하고 프랑스 정부와 프랑스 이주민인 콜롱(colon)에 대한 저항운동을 강화하였다. 1962년 7월 5일 국민투표를 거쳐 독립을 선포하고 9월 알제리 인민민주공화국을 수립했다. 국토의 85%가 사막이며 북부는 지중해성기후이다. 11월~2월 평균기온은 12℃미만이고 7~8월 평균기온은 30℃다.”¹⁾

이상은 위키백과사전과 한국 브리태니커백과사전에 설명된 알제리에 관한 몇 가지 대표적인 특징들이다. 이 중 우리나라와의 공통점이라면 식민지 역사

1) 인터넷의 한국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및 위키백과사전의 ‘알제리’ 항목 내용을 요약한 것임.

경험을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다. 기후조건과 자연환경, 역사적, 사회적 환경 등에서 두 지역 간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외부 환경과 조건은 그 지역 사람들의 의, 식, 주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삶의 가치관과 이념의 형성에도 작용을 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자연과 사회 환경에 놓인 사람들은 사고와 가치체계도 상이하게 발전시키지 마련이다. 그렇다면 한국인들과 알제리인들이 지니고 있는 여성관은 어떠한가? 외부적인 차이만 큼이나 여성에 대한 태도와 가치 평가기준에 차이가 있을까, 아니면 지리적, 사회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국민들의 여성관에는 유사점이 존재할까?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문점에 기초하여 한국과 알제리의 속담들에 대한 분석 및 비교를 통해, 그들의 전통적 여성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속담이란 “오랜 세월동안 민중의 역사와 더불어 구비 전승되어 온 것으로 민족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삶의 지혜와 교훈을 비유와 상징을 통해 압축해 놓은 언어문화유산이다”²⁾. “과거를 들여다보는 거울”³⁾의 역할을 하는 속담은 그래서 여성에 대한 전통적 사고와 가치관을 연구하기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속담 중에는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민중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상생활에 회자되는 것들이 있는 반면, 오늘날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사고방식과 가치체계가 담겨있는 속담들도 있다. 알제리 속담의 경우, 본 연구에서 참조한 네 권의 속담집⁴⁾ 분석으로는 이 두 가지를 가려 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를 전통적 여성관으로 한정하였다.

2) 조복희 외 (1998), “한국 부모-자녀 관계 관련 속담의 분류 및 이에 대한 인식도”, 『이동학회지』 제 9권 1호 p.2.

3) 김일규 (1982), “속담의 메타구조”, 『문학사상』 8월호.

4) 본 연구에서 알제리 속담은 프랑스어로 씌여진 4권의 책을 참고하였다 : 1) Ahmadou Kourouma (2003), *Le grand livre des proverbes africains*, Presse du Châtelet 2) Mohammed Ben Cheneb(2003), *Proverbes de l'Algérie et du Maghreb*, Maisonneuve & Larose, 3) Rabah BELAMRI(1986), *Proverbes et dictions algérien*, L'Harmattan, 4) Professeur Mwamba CABAKULU(1992), *Dictionnaire des proverbes africains*, L'Harmattan.

2. 한국과 알제리의 전통 여성관

부계 혈연의 가부장적 전통사회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하위 존재로 여겨지고 여성의 역할은 “부계혈족 집단의 지속을 위한 적장자 생산의 기능에서 그 최상의 가치를 부여받게 된다.”⁵⁾ 한국과 알제리의 전통사회 역시 가부장적 사회였던 만큼 이러한 사고가 지배적이었으리라는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두 지역의 속담을 통해 여성 편하적 사고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 분석해 본 후,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주 역할인 아내와 어머니에 대한 속담들을 중심으로 한국과 알제리 간 유사점 및 차이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일반적인 여성 편하 사고

‘성적 불평등사회’의 동의어로까지 여겨지는 가부장적 전통사회에서 여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질책의 대상이다. “딸 낳은 죄인”, 혹은 “딸은 하나도 많고 아들은 셋도 모자란다” 등의 우리나라 속담은 아들 선호사상을 넘어서서 남존여비 사고를 여실히 드러낸다. 딸을 낳은 며느리는 죄인으로 취급받고 질거지악의 대상이었음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 남아 선호사상은 ‘출가외인’의 사고, 즉 딸은 결혼 후에 자신의 집을 떠나 남자 배우자 집안사람이 된다는 생각이 그 원인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족보에 딸 이름은 넣지 않은 풍습 또한 딸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알제리 속담에서도 이와 동일한 사고를 볼 수 있다.

“이 세상에는 결코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할 세 가지가 있으니, 재산과 여자 그리고 말(馬)이다.”(알제리)⁶⁾

알제리 속담에서는 여자가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는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5) 천혜숙 (2004), “전통사회와 성차-담론-현실의 문제”, 제12회 실천민속학회 동계 전국학술대회 발표원고

6) “Dans ce monde il y a trois choses auxquelles il ne faut jamais se fier ; la fortune, les femmes et les chevaux.” (Algérie)

로 규정되면서 재산이나 말과 동일한 범주에 들어있다. 이는 소비되는 재화나 달아나는 말처럼 딸은 시집을 가게 되면 시댁 식구가 되어 집을 떠나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의 ‘출가외인’과 동일한 사고가 알제리에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어린 딸이 성장하여 어엿한 성인이 되어도 이러한 여성관은 마찬가지다. “여자는 대추야자 열매와 같다. 씻어서 먹어라”⁷⁾라는 알제리 속담이 전해주듯, 여자는 그저 ‘대추야자 열매’처럼 남자의 노리갯감으로 여겨졌다. 이는 한국 속담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여인은 질투를 빼면 두 근도 안 되는 존재”라는 한국 속담도 한낱 보잘 것 없는 미천한 존재로서의 여성의 위상을 표현한다. 이 외에도 여성의 존재를 폄하하는 알제리와 한국 속담들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특히 여자는 말이 많고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의 속담은 지면상의 문제로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이다.

“계집의 주둥이는 사기 접시를 뒤집어 놓는다.” (한국)

“소더러 한 말은 안 나도 처더러 한 말은 난다.” (한국)

여자들이 모이면 사기접시가 뒤집어질 정도로 말이 많고 시끄러우며 여자들은 비밀을 지킬 줄 모르기 때문에 여자인 아내에게 속내를 털어놓느니 말 못하는 짐승인 소에게 말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내용의 우리나라 속담들이다. 결국 말 많고 비밀을 지킬 수 없는 “여자들에게는 경제를 맡기지 못한다”⁸⁾는 코트디브와르 식의 개념이 생겨나게 되고, 결국 여자는 ‘소인배’에 비유되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존재로까지 폄하된다.⁹⁾

이처럼 속담에 드러난 두 지역의 여성 폄하 사고는 남성과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속담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남자의 사회는 부유하고 여자의 사회는 슬픔뿐이다”¹⁰⁾라는 알제리 속담은 남성의 능력과 비교된 여성의

7) “La femme est comme la datte : lave et mange.” (Algérie)

8) “On ne confie pas de dépôt à une femme.”(Côte-d’Ivoire)

9) 여성을 소인으로 폄하하는 내용의 한국 속담은 이렇다. “여자와 소인은 가까이 하지 말라.”

10) “La société des hommes est richesse, la société des femmes est détresse.”

능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속담의 좋은 예다. 남자는 사회를 잘 경영하여 부유하게 만드는 데 비해, 여성은 잘못된 경영으로 사회를 슬픔으로 가득 차게 한다는 의미로, 이는 여성을 무능력한 존재로 치부하면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막으려는 속담이라 할 수 있다. 남성에 비해 열등한 여성에게 어찌 사회를 맡길 수 있겠는가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깔려 있다. 이 속담은 여성이 공적인 일을 맡는대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금하려 한 한국 속담인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와 크게 다르지 않다. 뿐만 아니라 "여자가 손이 커서 잘 되는 집안 없다", 또는 "그릇과 여자는 밖으로 내돌리면 금이 간다" 등의 한국 속담들도 이에 해당한다. 알제리와 한국의 이러한 속담들은 결국 두 지역 모두에서 여성의 사회생활을 권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여자를 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 가두어 놓고 아내와 며느리 역할만을 강요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는 남성의 경우, 주변인들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공동체 더 나아가 국가와 세계를 위해 자신의 꿈을 펼치고 타인을 위해 일하도록 권장하는 "가장 고상한 남자란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한 사람이다"¹¹⁾라는 알제리 속담과 상반된다. 즉 남성은 사회생활을 권장한 반면 여성은 사회생활을 제약하였음이 명백히 드러난다.

사회생활에 제약이 가해지는 여성들은 배울 필요도 없으며 배움이 오히려 살아가는 데 힘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음은 당연하다. 배움의 필요성에 대한 두 지역의 속담은 여성 교육의 무용성이나 유해성을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해 주고 있다.

“여자가 너무 알면 팔자가 세다.”(한국)

“여자는 제 고을 장날을 몰라야 팔자가 좋다.”(한국)

“딸에게 글자를 가르치지 말라.”(알제리)¹²⁾

남자 배우자보다 학벌이 더 높은 여인을 아내로 삼지 않으려는 경향은 오늘날의 한국사회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속담 속에 담긴 사고체계의

11) “L’homme le plus noble est celui qui est utile à tous les hommes.” (Algérie)

12) “N’apprends pas (les lettres) l’écriture à ta fille.” (Algérie)

반영이 아닐까 생각된다. 반면 다음의 속담에서 보듯, 남자의 경우는 절대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받지 못한 남자는 영혼 없는 육체와 같다”¹³⁾라는 알제리 속담은 결국 교육받지 못한 남자를 정상적인 삶조차 꾸려나갈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 받은 남자에 대한 속담은 사농공상의 전통을 지닌 한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선비 논데 용 나고 학이 논데 비늘 쏟아진다”라는 한국 속담은 선비를 숭상하는 한국 사회에서 남성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속담 중 하나이다. 전통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출세를 위해서는 학문이 깊은 선비가 되는 것이 최선의 길이었던 것이다.

교육적인 면에서의 이러한 남존여비 사상은 여성의 지적 수준을 폄하하는 속담으로 이어진다. “여자들은 낡은 원피스와 같다. 끊임없이 수선을 해야 한다”¹⁴⁾하는 알제리 속담이 있다. 이는 남성들에 의해 끊임없이 교정 받고 개선되어야 하는 여성의 불완전성을 지적하고 있는 속담이다. 다시 말해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여성의 지적 수준의 한계를 드러내주는 속담인 것이다. 이는 “여자들은 머리카락은 길지만 지적 수준은 짧다”¹⁵⁾라는 알제리 속담에도 잘 나타나 있다. 여성의 지적 한계를 지적하는 그러한 속담은 한국에서도 발견된다. 바로 “가재와 여자는 가는 방향을 모른다”는 속담에 여실히 드러난다. 여자란 자신이 행동하는 목표와 이유조차도 알지 못하는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 여성의 존재를 앞을 향해 가면서도 옆으로 기어가는 가재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왕이면 다홍치마.”(한국)

“남자의 아름다움은 그의 지성에 있고 여자의 지성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있다.”(알제리)¹⁶⁾

13) “Un homme sans éducation est comme un corps sans âme.” (Algérie)

14) “Les femmes sont comme des vieilles robes, elles ont constamment besoin de racommodation.” (Algérie)

15) “Les femmes ont les cheveux longs, et les esprits courts.” (Algérie)

16) “La beauté de l'homme est dans son intelligence; l'intelligence de la femme est dans sa beauté.” (Algérie)

“이 세상에서 남자를 행복하게 하는 세 가지 : 미모, 자연, 흐르는 물.”(알제리)¹⁷⁾

교육의 부재가 여성의 지적 한계로 이어졌다면, 반면 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필요조건은 필연적으로 육체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곧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지적 능력을 지니지 못한 여성에게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외적인 미모였던 것이다. 두 지역의 속담은 여성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요청을 똑같이 드러내주고 있다. 남자의 아름다움을 지성에 둔 반면 여성의 지성은 아름다움에 있으며 여성의 아름다움이야말로 남자의 슬픔을 가시게 하고 흐르는 맑은 물과 아름다운 자연처럼 남자에게 행복감을 안겨준다고 표현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속담에 의하면 한국과 알제리, 두 지역 모두 일반적으로 여성 편하적인 전통적 여성관이 강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 아래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중요한 역할에 해당되는 아내와 어머니에 대한 두 지역의 시선을 관련 속담을 살펴보며 비교 분석해 보자.

2) 신부감으로서의 여성

한국뿐 아니라 알제리에서도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지만, 과연 한 가정의 혈통을 이어주고 집안을 꾸려갈 미래 아내로서의 여성은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우리는 두 지역 모두에서 신부감을 고르는 남성들에게 충고하는 교훈적인 속담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알제리든 한국이든 그 어떤 사회를 막론하고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이다. 결혼은 삶의 원천으로서, 알제리인들은 “하루 밤의 결혼을 위해 일 년을 심사숙고해야 한다.”¹⁸⁾ 한국인들에게도 배우자를 선정하는 일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 중차대한 일이다. “된장 신

17) “Il y a trois chose dans le monde qui font le bonheur des hommes : la beauté, la verdure et l'eau courate.” (Algérie)

18) “Pour un mariage d'une nuit, il faut réfléchir un an.”(Algérie).

것은 일 년 원수, 아내 못 된 것은 평생 원수”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회자 되는 “중매는 잘 하면 술이 석잔, 잘 못하면 뺨이 석대”라는 속담 역시 이를 잘 말해준다. 한 가정을 이루는 중대사를 치루기에 앞서 두 집안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매는 자칫 선불리 했다가는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모멸감을 맛 볼 위험조차 감수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다. “남편을 잘못 만나도 당대원수, 아내를 잘 못 만나도 당대원수”(한국)이니 신랑감이나 신부감을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후회하는 결혼보다 조용한 미혼이 낫다”¹⁹⁾와 같은 알제리 속담에 동의하게 된다.

그런데 알제리와 한국 두 곳 모두, 미래의 아내를 선택하기 위한 충고가 담긴 속담은 쉽게 발견되는 데 비해 미래의 남편 배우자 선정에 관련된 속담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 원인 중 하나로 두 사회의 가부장적 체제를 예로 들 수 있겠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자는 혼인을 통해 자신의 종족(가족)을 떠나 배우자와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그 집안사람이 된다. 즉 남자 측에서는 결혼을 통해 자기 집안사람이 되어 혈통을 이어 줄 인물을 데려오는 반면, 여자 측에서는 딸을 다른 집안으로 보냄으로써 가족의 일원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딸은 낳았을 때 섭섭하고 혼인시킬 때 섭섭하여 “딸은 두 번 섭섭하다”라는 한국 속담이 생기지 않았는가? 알제리의 다음과 같은 속담은 배우자 선택의 권리가 남자에게만 있었음을 더욱 공공연히 말해준다. “선택되는 것은 여자이지, 남자가 아니다.”²⁰⁾ 따라서 신부감을 고르는 속담만이 풍부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런데 여자 배우자 선택 기준은 알제리와 한국, 두 지역에서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 그 기준은 바로 장모이다.

“결혼하려면 장모를 보라.”(한국)

“엄마를 보고 그 딸을 선택하고 주인을 보고 종을 선택하라.”(알제리)²¹⁾

“엄마 행동에 따라 딸을 선택하라.” (알제리)²²⁾

19) “Mieux vaut célibat paisible qu'un mariage mené par le regret.” (Algérie)

20) “Ce sont les femmes que l'on choisit, non les hommes.”(Algérie)

21) “Choisissez les filles d'après leurs mères, et les domestiques d'après leurs maître.”(Algérie)

22) “Choisis la fille en fonction de sa mère.”(Algérie)

딸이 엄마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자라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한 모양이다. 또한 신부감으로는 나이 든 여인보다는 젊은 여인이 선호되었다. 젊은 여인을 찬미하는 알제리의 “젊은 여인은 행복이고 늙은 여인은 곧 불행이다”²³⁾라는 속담과 우리나라의 “나이 어린 딸이 먼저 시집간다”는 속담은 혼인 상대로 젊은 여인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었으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하게 해준다. 결혼해서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에게 복종하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린 여인이 선호되는 것이 당연하다. 결국 이 또한 가부장적 제도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과거 우리나라의 민머느리제도의 목적이 나이 어린 머느리를 맞아들여 일찍부터 가사노동을 시키거나 어려서부터 시어머니에게 절대 복종하도록 양육시켜 나중에 있을 고부간의 갈등을 약화시켜보려는 것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d알제리에서의 젊은 여인의 선호가 이러한 사고와 연관되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민머느리제도 역시 가부장적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인 만큼 가부장적 제도 하의 알제리도 이와 유사한 개념이 작용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일반적인 여성에게서는 아름다움을 선호하는 사회에서 역설적으로 여자의 미모는 혼인대상에서는 피해야 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는 자는 그녀에 대한 근심으로 인해 멸망할 것”²⁴⁾이라고 알제리 속담은 충고한다. 우리나라의 “미인박명”이라는 속담도 아름다운 여인은 팔자가 세다는 의미로 아름다운 여인을 경계할 것을 권하고 있다. 아름다운 여자는 남자를 불행으로 이끄는 근원으로서, 복수의 한 방편으로까지 사용될 수 있다. 그야말로 ‘달콤한 복수’라는 제목이 어울릴 알제리 속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 남자에게 복수하고 싶다면 그에게 예쁜 여자를 보내라. 한 여자에게 복수하고 싶다면 그녀에게 멋지고 젊은 남자를 보내라.”²⁵⁾

23) “La jeune femme est un bonheur et la vieille est un malheur.”(Algérie)

24) “Qui épouse une jolie femme par elle et par les soucis de la vie, il sera dévoré.”(Algérie)

25) “Si tu veux te venger d'un homme, envois-lui une jolie femme; et, si tu veux te venger d'une femme, envoie-lui un beau jeune homme.”(Algérie)

3) 아내로서의 여성

결혼을 예찬하며 신중하게 선택한 배우자들과 새로운 가정을 이루지만 즐거운 결혼생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알제리 남성들에게 결혼은 일주일 간 왕으로 지낸 후 일 주일 후엔 장관으로 강등되고 그 후에는 영원히 노예처럼 지내는 것이다.²⁶⁾ “첫날은 꿀 맛, 두 번째 날은 버터 맛, 세 번째 날은 역청 맛(알제리)”²⁷⁾이라는 속담 역시 세월이 흐름에 따라 달콤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점점 건디기 힘든 상황으로 변해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한국 남성들에게 결혼생활의 무료함은 아내에 대한 무관심과 평가 절하로 표현된다. “계집 바뀐 것은 몰라도 짓가락 바뀐 것은 안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말해주듯, 남편의 아내에 대한 관심은 짓가락에 쏘는 관심만도 못한 셈이다. “마누라는 빌려줘도 책은 안 빌려 준다”는 또 다른 한국 속담은 아내가 집안의 먼지 쌓인 책보다도 못한 존재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한국 남성들에게 아내는 의복 같은 존재일 뿐이다. “형제는 수족과 같고 마누라는 의복과 같다”는 속담에 나타나듯, 형제는 수족과 같으니 내 몸의 일부처럼 소중한 반면, 아내는 바꿀 수도 버릴 수도 있는 의복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통 사회에서 혈연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속담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한 가정에서 아내가 차지하는 위상은 형제보다 아래에 있었음을 알게 해주는 속담이다. “아프리카 여성은 집이나 식기와 교환할 수 있는 물건이나 다름 없었다”는 테레즈 모로(Thérèse Moreau)의 보고서²⁸⁾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아내는 그저 남편이 있을 때에나 힘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아내의 말을 참조하고 그녀가 말한 반대로 행동하라.”(알제리)²⁹⁾

26) “Sept jours roi, sept jours ministre, puis toujours esclave.”(Algérie)

27) “La première est du miel ; la seconde, du beurre ; et la troisième, du goudron.” (Algérie)

28) Thérèse Moreau, “Concepts et terminologie en matière d'égalité entre les sexes et de droit des femmes”, 『l'Agence intergouvernementale de la francophonie』, 2004, (p.14.)

29) “Consulte ta femme et fais le contraire de ce qu'elle te dit.”(Algérie)

“아내의 말을 참조하고 네 생각대로 행동하라.”(알제리)³⁰⁾

따라서 이처럼 무시되는 아내의 충고나 조언은 당연히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알제리 남성들은 심지어 아내의 의견과 반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라는 충고를 받고 있다. 이는 한국 속담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예를 들어 “여자 말은 잘 들어도 패가하고 안 들어도 패가한다”는 한국 속담은 어떤 일이 진행됨에 있어 여자의 말은 그리 중요하지 않으며 일의 결과는 여자의 말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내의 말은 들어도 안 들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는 한국 ‘여자들은 앞을 보면서도 옆으로 가는 가재’처럼 자신이 사고하는 방향, 나아가 방향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집안의 대소사를 운영함에 있어 여자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남자가 결정함으로써 가부장적 권력을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하는 의도였음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더욱이 아내는 무시의 대상에서 더 나아가 학대의 대상이었다. 아내가 조금이라도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무력이 행사된다. “여자와 복어는 사흘 걸러 때려야 한다”는 한국 속담은 여자에 대한 남자의 폭력을 정당화시켜주는 속담이라 할 수 있다. 딱딱하게 말린 복어를 물에 담갔다가 다듬이 방망이로 두들기면 살이 연하고 부드러워진다. 반항하고 복종하지 않는 여자는 이처럼 심하게 매질을 하여 온순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반영한다. 알제리 속담도 이와 별반 차이가 없다. “매일 아침, 너의 여인을 때려라. 너는 이유를 모를지라도 여인은 항상 맞는 이유를 알고 있다!”³¹⁾ 이유도 없이 체벌을 가하기만 하면 아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다는 알제리의 이 속담은 남편의 상습적인 아내에 대한 폭력을 사회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더 나아가 “여자는 알파처럼 짓이겨야 한다. (짓이기고) 남은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알제리).³²⁾ 알파란 지중해 서쪽, 북아프

30) “Consulte ta femme et fait à ta tête.” (Algérie)

31) “Frape ta femme chaque matin, même si tu ne sais pas pourquoi, elle le saura toujours !”(Algérie)

32) “La fille il faut l'écraser comme l'alfa. car ce qui en reste c'est suffisant.” (Algérie)

리카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로 종이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알파를 마구 으깨고 짓이겨야 한다. 북어처럼 패라는 한국 속담이나 이유도 없이 때리거나 알파처럼 짓이겨버리라는 알제리 속담은 여자에게 심한 폭력을 가함으로써 남자에게 절대 복종시키고 억압하려는 사회현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렇다면 여인의 반응은 어떠해야 했을까?

“숫염소가 냄새가 나도 암염소는 그를 밀쳐내지 않는다.”(말리)³³⁾

말리의 이 속담은 남편이 비록 비난받을 상황에 처했을 지라도 아내는 남편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곧 아내는 아무리 심한 대우를 받더라도 남편을 존경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 가능한 것은 “말은 기사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달려있다”(알제리)³⁴⁾와 같은 사고 체계 때문이다. 이는 결혼 후 여자의 인생이 전적으로 남자에게 달려있다는 한국의 “여자 팔자 뒤옹박”이라는 속담과 일맥상통한다. 뒤옹박은 박을 쪼개지 않은 채로 꼭지 근처에 구멍을 뚫거나 꼭지 부분을 베어내고 속을 파낸 바가지를 말하는 것으로, 부잣집에서는 여기에 쌀을 담고 가난한 집에서는 여물을 담았다. 결국 어떤 집이냐에 따라 뒤옹박의 용도가 결정되었던 것이다. 곧 뒤옹박의 비유는 여자란 어떤 집안으로 시집을 가느냐에 따라 그녀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 속담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으로 평가되기보다는 남편과 시댁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삶이 결정된다는 기혼여성의 운명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점에서 다음의 마그레브 속담은 한국의 여인들에게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기혼여성의 불행한 운명과 그에 대한 도피의 욕망을 표현해주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사회적으로 당연시 되었던 여성에 대한 전통 사회의 불합리한 요청들이 남성의 ‘배신’ 앞에서는 여성들의 독기어린 ‘원한’으로 나타나며 두 지역의 속담이 아주 유사하게 이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33) “Le bouc pue, mais les chèvres ne le repoussent pas.”(Mali).

34) “Le cheval dépend du cavalier, et la femme de l'homme.”(Algérie)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한국)
 “만약 한 남자가 너를 헐박을 하면 평화로이 자도 된다. 그러나 만약 한 여자가 너를 헐박하면 밤을 하얗게 지새우리라.”(알제리)³⁵⁾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남자에게 절대 복종하는 여인이 배신을 당한다면 마음속에 독을 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의 여인과 알제리 여인 모두 일단 복수의 마음을 갖게 되면 무서운 존재로 탈바꿈하게 된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릴 정도로 여인의 한은 계절까지 거스를 만큼 독하다. 이러한 한국의 여성 이미지는 헐박당한 남성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정도로 독기어린 모습을 보이는 알제리 여성의 이미지와 겹친다. 이는 “여자들은 뱀과 같아, 피부는 부드럽지만 한번 물리면 치명적이다”³⁶⁾고 하는 알제리 속담에서나, “여자는 깊지는 않지만 물에 빠져 죽게 하는 차가운 물이다”³⁷⁾고 하는 세네갈 속담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여성의 복수심을 드러내는 이러한 속담들은 남성들로 하여금 여자들에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결혼 전 딸로서 아버지에게 절대복종하다가 결혼 후에도 또 다른 남자(남편)에게 절대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남성중심 사회에서 연약한 여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민중들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자를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는 충고의 속담도 생긴 듯하다. “여자는 불과 같다. 취하러거든 조금만 취하라.” 이는 여자를 불에 비유한 말리의 속담으로서, 여자의 숨겨진 무서운 면모를 표현하고 있다. 인간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고 유용한 것 중의 하나가 불이지만 잘못 다루게 되면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것 또한 불의 속성이다. 남성들은 여성을 다룸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함을 강조한 속담이라 할 수 있다.

35) "Si un homme t'adresse des menaces, dors en paix ; si une femme t'adresse des menaces, passe la nuit blanche." (Algérie)

36) "les femmes sont comme des serpents, elles ont la peau douce mais leurs morsures sont mortelles." (Algérie)

37) "La femme est une eau fraîche qui tue, une eau peu profonde qui noie."(Sénégal).

“남자는 배짱, 여자는 절개.”(한국)

“순수하지 않은 여자는 무의미한 단어와 같다.”(알제리)³⁸⁾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나 알제리 사회에서 남성들은 처첩을 여럿 두는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되었지만 여자들에게는 개가금지라든가 일부종사가 권장되었다. 일부다처제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던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에서도 여자는 한 남자만을 따를 것을 권하는 속담이 쉽게 발견된다. 가령 “여자는 작은 영양의 가족과 같아 그 곳에 두 사람은 앉을 수 없다”³⁹⁾고 하는 자이르의 속담이 그에 해당한다. 여성은 부계혈통을 이어줄 아이를 생산해야 하며 부계혈통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여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수성과 정절이다. 위에 언급된 한국과 알제리의 두 속담은 여성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요청을 똑같이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성 관련 속담들로부터 우리는 한국과 알제리에서의 전통 여성은 결혼 유무에 상관없이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으며 정조를 지키고 순수함을 잃지 않고 가부장에게 복종하며 사는 것이 모범적 여성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한국과 알제리에서 여성은 늘 열등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지니고 있었던 것일까? 여성의 또 다른 역할이었던 어머니와 관련된 속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4) 어머니로서의 여성

아프리카와 한국 속담에서 미혼이나 기혼 여성을 우대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내용의 속담은 찾기 어려운 반면, 희생과 모성애의 상징으로 표현되며 삶의 근원으로 묘사되는 어머니로서의 여성은 쉽게 발견된다.

“출산하지 않은 여인은 여성성의 반 이상이 부족하다.”(코트디브아르)⁴⁰⁾

38) “Une femme sans pudeur est comme un mot sans sel.” (Algérie)

39) “La femme est semblable à une peau de kabundi, on ne peut s'y asseoir à deux.”(Zaire)

40) “A la femme sans maternité manque plus que la moitié de la féminité.”

"병아리없는 닭은 그저 깃털만 고울 뿐이다.“(부루키나 파소)⁴¹⁾

기혼 여성이라 해도 출산하지 않은 여성은 여성성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저 무늬만 여성일 뿐 진정한 여성으로서는 인정받을 수 없다. “불은 재를 남기고 여인은 아이를 남긴다”⁴²⁾는 알제리 속담에서 말해 주듯, 여자의 가장 큰 역할은 부계 사회의 혈통을 이어 주는 것인 만큼, 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여성은 존재적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반면, 이를 온전히 수행한 ‘어머니’는 두 지역 모두에서 사회의 주축으로 여겨진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이없는 가정은 감옥이며 무덤(알제리)”⁴³⁾으로 여겨졌고 “여자 팔자는 아이를 낳아봐야 알기(한국)” 때문이다.

또한 자녀 양육을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모든 이의 존경과 감탄의 대상이 된다.

“하나의 머리가 자라게 하기 위해 다른 머리는 하얗게 쉰다.”(알제리)

“암말이 말하기를, 나는 출산 이후 내 뉘의 보리를 먹어 본 적이 없고 맑은 물을 마셔 본 적이 없다.”(마그레브)⁴⁴⁾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살피며 엄마의 머리는 하얗게 쉬어버린다는 알제리 속담은 자녀 양육을 위해 한 평생을 받치는 어머니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잉어와 암말에 비유된 자이르와 마그레브 속담 역시 자녀를 위해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어머니의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자녀를 위해 일하는 것은 성지순례와 성스러운 전쟁보다 더 가치있는 일이다. (알제리)”⁴⁵⁾

(Côte-d'Ivoire).

41) "La pintade sans poussins n'est rien que des plumes brillantes."(Burkina Faso).

42) "Le feu laisse des cendres, la femme laisse des enfants."(Algérie)

43) "Une maison sans enfants est une prison, une tombe." (Algérie)

44) "La jument a dit : Depuis que j'ai mis bas, je n'ai pas mangé entièrement ma ration d'orge et n'ai pas bu mon eau claire."(Algérie)

우리나라의 “내리 사랑”이니 “사랑은 내려가고 걱정은 올라간다”는 속담이 이와 유사하다 하겠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데 비해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걱정을 끼친다는 뜻으로 윗사람은 어머니를 비롯한 부모를 일컫는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지만(한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란 어머니에게는 사랑스럽기 그지없는 존재이다. “원숭이도 엄마 눈에는 가젤로 보이고”(알제리)⁴⁶⁾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쁜 법”(한국)이기 때문이다.

3.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알제리와 한국에서의 여성속담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두 지역의 전통적 여성관을 살펴보았다. 자연 풍토가 다르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유사점을 찾기 쉽지 않은 두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여성에 대한 관점은 놀라울 만큼 유사하였다. 특히 여성을 비하하고 남자에게 예속된 여성의 모습을 공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두 지역의 속담들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두 지역 모두 가부장적 체제의 사회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흔히 가부장적 체제 하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며 남성에 예속된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알제리의 경우 이슬람 종교의 영향 또한 배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코란에 명시되어 있는 여성의 역할과 가치, 결혼에 대한 가르침이 철저히 남성위주로 되어 있으며 많은 여성들은 단지 남성의 소유물로 취급되고 처벌 또한 알라의 뜻으로 정당하게 여겨지는 가 하면, 알라가 여자를 창조한 것은 남성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고 여자의 생애는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고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라고 명시⁴⁷⁾되어 있기 때문이다.

45) “Travailler pour les enfants est plus méritoire que le pèlerinage et la guerre siane.” (Algérie)

46) “Tout singe, aux yeux de sa mère, est une gazelle.”(Algérie)

47) 카멜 히샤(Kamel Hisham) 박사가 2003년 9월 1일에서 4일까지 중동선교회 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점은 어머니와 관련된 속담의 경우이다. 일반적인 여성에게 가해진 폄하적인 사고 및 부정적인 이미지는 찾아볼 수 없고 희생과 사랑의 상징으로 표현된다는 점 역시 두 지역 속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지역에 이처럼 비슷한 속담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아주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를 통해 비록 겉으로 보이는 의식주의 생활문화가 다를지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가치체계 그리고 상상력은 서로 유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동양이라는 동일한 문화권 내의 속담 비교가 아닌, 북 아프리카 알제리와 한국 속담의 비교를 통해 얻어진 이와 같은 결과는 인간의 보편성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이점에서 우리는 속담이야말로 한 사회의 생활습관, 가치체계, 문화양상을 이해하는 데 훌륭한 사회적 언어이며, 향후에도 더욱 다양한 지역과 사회와의 비교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언어 형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소개된 속담들 중에는 현대 사회의 생활 방식 및 가치관에 부합될 수 없는 속담들도 여럿 있다. 예를 들어 “복어와 여자는 사흘 걸러 때려야 한다”는 식의 한국 속담이나 “여자는 알파처럼 짓이겨야 한다”는 알제리 속담은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공감할 수 없는 속담들이다. 이런 부류에 속하는 속담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오늘날에는 어떠한 가치체제로 변화되었는지를 묻는 연구는 현지조사를 통한 지역 연구를 통해 다음 기회에 더욱 심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참 고 문 헌

- 김경량, “속담 속에 나타난 아프리카인들의 의식구조”. 『프랑스 문화예술학회』 제39집. 2012.
- _____, “아프리카 이미지의 명과 암”. 『비교문화연구』 제27집. 2012.
- 김열규, “속담의 메타구조”. 『문학사상』 8월호. 1982.
- 김중도, “모로코 속담을 통한 의식구조 연구”. 『중동연구』 제27권 1호., 2008.
- 송미루, “스와힐리 속담에 나타난 인간과 사회의 모습”. 『아프리카 연구』 제4호. 1998.
- 엘렌 달메다 토포르 지음(이규현 외 옮김). 『아프리카 열일곱 개의 편견』. 한울아카데미. 2006.
- 장춘매, “한, 중 동물 속담비교를 통한 한국문화 교육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5.
- 조복희, 이진숙, “한국 부모-자녀 관계 관련 속담의 분류 및 이에 대한 인식도”. 『아동학회지』 제19권 1호, 1998.
- 조제 카푸타 로타, 『아프리카 인들이 들려주는 아프리카 이야기』, 이경래 외 옮김, 새물결, 2012.
- Ahmadou Kourouma. *Le grand livre des proverbes africains*. Presse du Châtelet. 2003.
- Mohammed Ben Cheneb. *Proverbes de l'Algérie et du Maghreb*, Maisonneuve & Larose. 2003.
- Mwamba CABACLU. *Dictionnaire des proverbes africains*, L'Harmattan. 2012.
- Rabah BELAMRI. *proverbes et dictons algériens*, L'Harmattan. 1986.
- Thérèse Moreau. "Concepts et terminologie en matière d'égalité entre les sexes et de droit des femmes", *l'Agence intergouvernementale de la francophonie*. 2004.

❖ ABSTRACT

Comparison of Traditional Perspective of Women in the Proverbs of Algery and Korea

KIM, Kyung Rang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raditional perspective about women between Algery and Korea. Through this study, we found out following common denominators: sexual discrimination and denigration of women. Under the patriarchal system in Korea and Algery in the past, women were considered to be inferior to men and treated as men's possessions.

The noteworthy feature is the perspective of mother. In both countries, the image of woman as a mother is regarded as the source of life and a central axis leading our society.

It is very remarkable that we could find a lot of common ground despite that there are a lot of social, cultural and geometrical differences.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it is proved that the proverbs tell us the universality among people in the world regardless of culture and region.

Key Words

속담, 전통 여성관, 알제리, 성차별

proverb, traditional perspective of women, Algery, sexual discrimination

논문접수일: 2013. 02. 10.

심사완료일: 2013. 03. 10.

게재확정일: 2013. 03. 15.